

여·야 이합집산... 총선판도 '시계 제로'

민주당 등 진보진영 분열 속 보수는 세력 결집
 민주출신 박희수 무소속 등록... 당원들도 탈당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후보 가세하며 외연 확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되면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오른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과 경선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열정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7일까지 이를 동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이뤄지는데 차량 유세,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간의 결집을 시도했으나 제주시갑 선거구 송재호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에 불만을 품은 박희수 예비후보가 이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표심이 나뉘게 됐다. 제주시갑에 출마했던 같은 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송 캠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시갑 선거구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가 27일 후보로 등록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제주시갑 선거구 진보성향의 표심은 더욱 분산되게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 경선에서 오영훈 예비후보에 패한 부승찬 예비후보도 "백의종군하겠다"며 오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제주시갑 선거구 국민경선에서 탈락한 구자현·

김영진 예비후보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장성철 예비후보의 캠프에 합류하면서 세력 결집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미래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공천후보 경선에서 '컷 오프'를 당한 고경실 예비후보는 장 캠프에 합류하지 않아 원팀의 위력은 2%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제주시을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부상일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김호 예비후보도 26일 출범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나홀로 선거운동을 했던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도 후보등록을 포기하고 미래통합당 공동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처럼 다음달 2일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진보는 분열되고 야권은 결집하고 있어 4·15총선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총선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제주시갑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송재호·미래통합당 장성철·무소속 박희수·임효준 ▷제주시을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오영훈·민중당 강은주·국가혁명배당금당 전운영 ▷서귀포시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위성곤·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도의원 등록 후보는 ▷대정읍:더불어민주당 박정규·무소속 양병우 ▷대천·중문·예래동:무소속 고대지.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26일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사진 왼쪽), 미래통합당 장성철(사진 가운데),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제주시 이도2동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정의 3자녀→2자녀로 완화

출산장려지원조례 등 개정
 도, 출산장려금 사각지대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양육령

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돼 4월 1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도에 6개월 이상 거

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자녀 가정 다자녀 카드 발급일은 조례 시행일로 6개월 이후 발급 가능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로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원 지사 "제주, 코로나 피난처 아니다"

4박5일 제주여행 뒤 확진
 미유학생 법적 책임 거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방침"

"이기적인 여행객은 필요없다. 가장 최악의 경우다."

원희룡(사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입도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의 발언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 곳곳을 다녔던 뒤 25일 서울 강남구 보건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여)씨를 겨냥한 것이다. A씨와 접촉자는 현재까지 47명으로 확인됐지만, 우도 도항선 탑승 승객 등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했다.

특히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날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에는 표선면 소재 해비치의원까지 방문했지만 선별진료소는 찾지 않았다. 원 지사는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



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며 "제주는 상대적

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하지만 피난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원 지사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출신 유럽 유학생 B(26·여)씨의 행동은 수칙을 엄격히 지켰다고 추켜세웠다. B씨는 지난 24일 유럽에서 입국한 뒤 정부의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별다른 외출 없이 자택에 머물다 25일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유는 20일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에는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송은범기자

'한국해녀를 말하다' 오늘 KCTV 방영

본보 해녀특별취재팀
 지난해 출향해녀 채록 기록
 국내외 출향해녀 기록 담아

한라일보 해녀특별취재팀이 제작한 다큐 프로그램 '제주출향해녀 기록:한국해녀를 말하다'가 오늘(27일) 오전 9시30분부터 KCTV 제주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한국해녀를 말하다 3부'는 지난 1960~1970년대 제주를 떠나 육지로 나가 정착해 살고 있는 제주 출향해녀들의 생생한 삶을 기록한 다큐 프로그램이다.

본보 해녀특별취재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전라남도 완도를 시작으로, 청산도, 대도도, 신지도, 경주시 감포읍,

경북 남해군 평산리, 금오열도, 중국 다롄시 등을 찾아 현지에서 제주출향해녀의 발자취 채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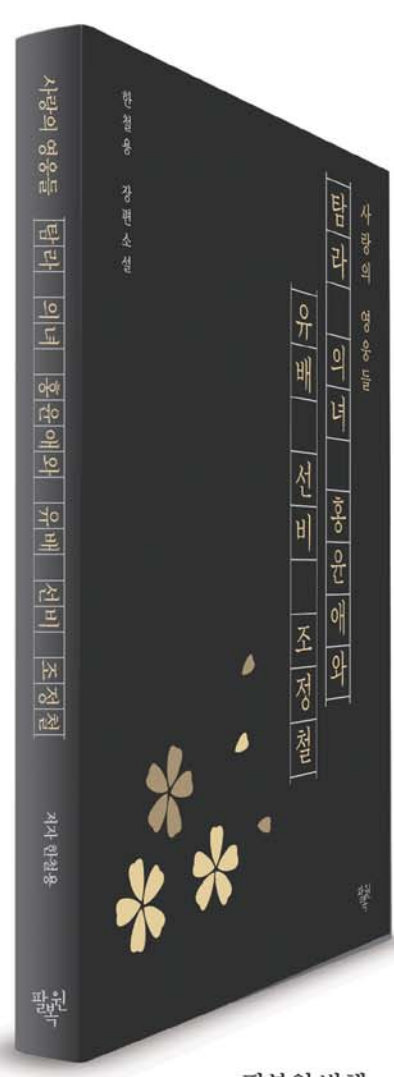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해녀특별취재팀은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제주출향해녀의 해외 활동에 대한 발자취를 추적 탐사하기 위해 중국 다롄시를 찾아 현지 조사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현지 수산업 관련 관계자에게 과거 제주해녀로 추정되는 아시아 여성들이 중국 현지에서 물질을 이어왔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방송은 27일 오전 9시30분과 오후4시, 29일 오후 7시30분 KCTV제주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사랑의 영웅들

탐라의 의녀 홍윤애와 유배선비 조정철



팜복원 발행

제주인의 필독서

제주에서 꽃 피운 슬프고 위대한 사랑 이야기

제주 출신의 작가가 그동안 묻혀있던 제주의 보물같은 문학 소재를 캐내었다

한철용(예비역 육군 소장 ★★) 장편 소설

정조 암살 미수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제주도도 유배 온 조정철과 사랑하는 조정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탐라 토박이 비바리 홍윤애의
 소설같은 이야기가 진짜 소설로 재탄생했다.

조정철이 남긴 400편의 시를 소설로 재구성
 이를 통해 240여년 전 제주도의 풍습과 생활상 소개

정가 13,000 원
 판매처 한라서적 / 남문서점 / 우생당 / 서귀포 우생당 / 전국 인터넷서점 등
 문의 02-338-6516

홍의녀는 향리인 홍처훈의 딸이다.
 정조 1년(1777년) 내가 탐라에 귀양 왔을 때
 의녀가 나의 적소에 출입하였다.
 신축(1781)년에 간사한 사람들이
 나와 의녀를 죄를 꾸며 죽이려고
 형틀에 묶어 치니 혈육이 남자했다.
 의녀는 "공의 생사는 나의 죽음에 달렸다"라
 말하고 함구하여 불복하자
 대들보에 꿰처럼 거꾸로 매달았다.
 그러자 바로 순절했다. 이날이 윤 5월 15일이다.
 그 뒤 31년 만에 내가 방야사로 임명받고 와서
 묘 주위를 정비하고 시 한수를 지어 부친다.

- 제주목사 겸 전라도방야사 조정철 씀 -